

일반화된 전문가 요구되는 번역계

글_강주현(번역가)

한겨레문화센터에서 내 이름을 걸고 출판번역을 강의한 지 벌써 5년을 넘었다. 그동안의 경험을 근거로 한겨레 직원들과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다. 강의등록 인원과 경기의 상관관계다. 우습게 들리겠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등록인원수가 많아진다. 물론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안타깝게도 외국어를 알면 번역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분야라는 인식이 이런 현상에서 읽혀지는 듯하다.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강의는 12주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번역 강의는 10주만 진행된다. 첫 주는 번역에 대한 일반론이 강의되고, 마지막 주는 총정리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10주 동안, 우리가 책을 분류할 때 사용되는 거의 모든 분야가 다루어진다. 자기계발, 사회 일반, 환경, 자연과학, 종교, 비소설, 예술 일반, 인문과학, 정치사회, 미술을 A4로 1~2장씩 공부한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텍스트의 난이도는 비슷하다. 단어와 문장 구조에서 모든 텍스트의 난이도가 비슷하다는 것은 학생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일반사회, 환경, 자연과학에서 사용되는 텍스트가 관련된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다. 인문과학이나 정치사회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 주에 사용하는 예술 텍스트만이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현상이 매번 어김없이 확인된다. 오스카 와일드의 《옥중기》 중 한 꼭지를 다루는 비소설을 끝내는 6주가 지나면 학생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인문과학을 하고 나면 더 줄어든다. 정치사회를 끝낸 다음 주에서 처음 학생 수에서 절반이 남으면 다행이다. 왜 그럴까?

학생들이 인정하듯이 단어 수준이나 문장 구조는 10개의 텍스트가 엇비슷하다. 그런데 왜 6주가 지나면 학생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까? 내 생각이지만, 번역을 향한 치열함이 없기 때문이다. 외국어를 알면 누구나 번역에 도전할 수 있으리란 안이한 생각에서 출발한 때문일 수 있다. 번역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상식이 있어야 한다. 요즘 말로 하면 ‘교양 (general culture)’이 있어야 한다. 교양이 부족하면 한 문장을 정확히 번역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찾아 참고해야 하겠다는 각오라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수고가 싫은 듯이 학생들이 하나 둘씩 줄어든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6주차에 진행되는 와일드의 글은 영어로 쓰인 최고의 명문이다. 것처럼 영어를 다양하게 사용한 글을 찾아보기 어렵다. 학교에서 배운 영문법이 총동원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문법 실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하지만 내가 문법을 짚어주면 누구나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요컨대 자기가 갖고 있는 문법 실력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런 부족함은 공부하면서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 문제는 상식의 부족이다. 지금까지 한겨레 번역학교는 17기를 배출했지만 와일드의 글에서 plastic art를 정확히 번역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거의 모두가 ‘조형예술’이라 번역했다. 크게 보면 틀린 번역은 아니다. 하지만 와일드의 글에서 그 단어가 쓰인 문장이 인상주의 화가의 풍경화와 고대 그리스의 조각을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은 몰랐다. 그래서 ‘조각’이라 번역하지 못하고 큼직하게 ‘조형예술’이라 번역한 것이다. 엄격하게 따지면 틀린 번역이다.



● 이 글을 쓴 강주현은

언어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프랑스 브장송 대학에서 수학했다. 한국외국어대과 건국대 등에서 강의. 현재는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노엄 촘스키를 비롯한 언어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했으며 역서로는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선물》 《나의 프로방스》 《게으른 산책자》 등 100여 권이 있다.

물론 번역의 첫째 조건은 외국어의 완전한 이해다. 그러나 외국어를 안다고 번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번역은 문화를 번역하는 것이라 말한다. 그럼 프랑스의 문화를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프랑스책을 번역하지 못하는 것일까?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더라도 프랑스 문화까지 완벽하게 알 수는 없는 노릇이다. 책을 보고 배우면 된다. 신문을 보고 배우면 된다. 문화는 번역가에게 결국 상식이고 교양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교양’이 없으면 번역하기가 어렵다. 힌 두교의 최고신 시바가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가 한 몸으로 된 반남반녀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모르면 번역이 우습게 되는 경우가 있다. 반 고흐가 고갱을 존경했다는 사실을 모르면 둘 사이의 대화가 우습게 번역될 수 있다. 올바른 번역가가 되기 위해서는 상식의 폭을 넓히는 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번역에는 폭넓은 상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한 분야를 전문으로 번역하면 되지 않겠냐고 반문할 수 있다. 자기계발이나 소설만 번역할 거니까 그런 깊은 상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결국 깊이가 넓이를 이기는 법이니까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번역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통섭’이란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 이전에 흔히 사용하던 말로는 ‘학제간 교류’다. 이제 학문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자기계발에 심리학이 더해지고, 급기야 윤리학과 신학까지 더해진다. 내가 최근에 검토한 책은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군사학, 신경과학, 진화생물학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미래형 인재로 ‘일반화된 전문가’(general specialist)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번역가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 상식, 즉 교양을 쌓는 방법이 무엇일까? 해답은 간단하다. 신문을 읽어라! 내 생각에 신문만큼 많은 상식을 전해주는 매체는 없다. 하루도 빠짐없이 1면부터 마지막 면까지 읽는다면, 그렇게 매일 읽는다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상식으로 무장할 수 있다. 시간이 너무 걸린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하루에 1시간이면 충분하다. 이른바 전문 번역가라 한다면 그 정도의 투자는 조금도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막강한 상식으로 무장했다고 세상을 고뇌하는 고상한 사람인 척은 하지 말자. 출판계에는 ‘번역한다는 사람은 많은 데 정작 번역할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왜 그런 말이 있을까? 번역하는 사람이라면, 또 번역가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하나 더, 이 말을 전혀 듣지 못한 번역가라면 왜 나는 그런 말을 듣지 못했을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